데스크시각

김주정

선거판의 프로크루스테스들

대학시절 읽은 그리스 신화 한 토막이 떠올랐다. 민주당 광주시장 입지자들이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경선해야 한다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다.

그리스 신화 테세우스의 이야기 중에는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라는 노상강도가 나온다. 그는 아테네 교외 케피소스 강가에서 살면서 여행객을 집에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몸이 침대보다 짧으면 잡아 늘리고 길면 가차 없이 잘라버렸다. 여기서 침대는 제 맘대로 세상을 재단하는 아집과 편견의 상징이다.

아집과 편견의 상징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민배심원제 도입 논란에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는 놓여있다. 배심원제 도입을 희망하는 쪽은 국민경선으로는 개혁적인 후보를 뽑을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수도권 등 전국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편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마지막 전국 단위 선거이니 이번에 이겨야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논리다.

반대하는 쪽은 이 제도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느냐는 입장이다. 소수의 배심원들이 과연 독립된 객체로서 공정한 잣대로 후보를 선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배심원단이 후보를 압축한 뒤 시민참여경선에 부친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자를 것이며 배심원단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주장이다.

둘 다 그럴듯하다. 정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 민의를 제대로 수렴해야 한다는 논리도 솔깃하다. 그러나 후보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여론조사에서 뒤지는 후보들은 배심원제 도입을, 앞서는 이들은 시민참여경선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듯한 대의명분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 고집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올 법하다.

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사퇴 논란에서도 '프로크루스테스'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국회의원 하라고 밀어준 민의를 거스를 것이냐"는 물음에 "민의가 시장 나가라는 것이다"라고 답하는 것은 아무래도 억지스럽다. 사퇴하라는 쪽이나 버티는 쪽이나 도대체 시민의 뜻을 제대로 물어보고들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문제는 이런 논란의 와중에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를 살리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끼어들 틈조차 없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선거가 지방자치를 살리는 기회가 아닌, 대선이나 총선 승리의 디딤돌 정도로 취급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최근 광주를 찾은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묻어난다. 그는 "호남이 변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시민배심원제 도입 등 개혁공천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기득권을 유지해온 광주·전남에서 먼저 변화를 견인하지 않는 한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민심도 사로잡을 수 없다는 주장이겠지만, '구태의연한 호남' 때문에 민주당이 중앙정치권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처럼 해석되는 대목이다. 중앙당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서 호남에만 '변화'를 앞세워 '줄서라'는 의미로 읽혀질 수 있다.

자치 살리는 선거돼야

사실 '줄서기'는 지방자치의 중앙예속이라는 말로 이해될 정도로 폐해가 심각하다. 광주·전남의 경우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현실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중앙당 실력자에게 잘 보여 공천권을 따려는 인사들로 넘쳐난다. 이 과정에서 능력과 자질보다는 연줄과 금품이 더 약효를 발휘했고, 이는 결국 지방자치의 부실로 이어졌다. 정당이 공천한 숱한 단체장이 금품 수수 등 비리로 중도하차한 것이 그 증거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순 없다. 광주 5개 자치구 모두 직원 급여도 줄 수없을 정도 재정이 열악해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전남의 시군들은 더 힘들다.

정부의 잘못이 크다. 민주당이 잘한 것도 없다.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지방자치를 살릴 수 있느냐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재집권의 첫걸음이다.

거리의 왕으로 군림하던 프로크루스테스도 결국 테세우스에 잡혀 같은 침대에 눕게 됐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정치부장〉 jjnews@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설

안타까운 광주시향의 서울연주 무산

광주시립교향악단이 광주민중항쟁 30주년을 맞아 추진했던 말러 교향곡 '부활'의 서울연주회가 무산돼 아쉬움을 주고 있다. 부활 공연은 광주시향 단원과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합창단 등 518명의 연주자가 참여하는 의미있는 프로젝트로 기대를 모았었다. 그러나 지난해 예술의 전당 대관 심의과정에서 탈락한 뒤 마땅한 공연장을 확보하지 못해 서울 연주회를 접을 위기에 처했다.

부활의 서울 연주는 단순한 지방 연주단체의 연례적인 공연이 아니라, 5·18 30주년을 맞아 서울 시민들이 광주 민주항쟁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실망감이 더욱 크다.

5·18 30주년 기념행사를 국민 통합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영·호남은 물론 충청, 강원지역 주민들이 모두 모이는 국민통합 행사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통합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다채로운 30주년 기념 공연 등을 개최해야 한다. 5·18 관련 대형 문화행사의 타지역 개최에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하는 이유다.

부활의 서울 공연 무산은 5·18의 전국화가 아직 멀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1980년 당시 광주시민들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은 이미 세계 여러 지역에 널리 알려졌다. 반면 전국화의 길은 더디고 험난하기만 하다.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뒤 5월 정신이 계승 발전되기는커녕 오히려 퇴색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야 할 때다.

올해를 5월 정신의 세계화와 전국화의 새로운 전기로 삼아야 한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5·18의 참된 의미를 심어주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시급하다.

'4인 선거구' 분할 一黨 독식 우려된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지역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분할 문제가 대두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달 쟁점이 됐던 4인 선거구에 대해 현행 6곳을 유지하고, 2인 선거구는 4곳, 3인 선거구는 9곳으로 총 19개 선거구 59명의 구의원을 두는 '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6곳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오는 5일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주 희망과 대안, 광주·전남 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진보 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 3당은 "선거구 분할을 통해 이미 지방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또다시 지방의회를 독차지하겠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구 분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시의회 측은 "같은 동을 나누어 선거를 치르는 것은 관리나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물론 양측의 주장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하겠으나 속내를 보면 시의회 측의 입장은 왠지 궁색하다. 광주시의회를 민주당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의원 마저 민주당이 독식하겠다는 심산이다. 과거 지방선거에서 보듯 기초의원 선거구가 2인인 경우 민주당 후보가 거의 당선되지 않았는가. 또한 시와 시의회의 추천으로 선임된 선거구 획정위원들이 산고 끝에 도출한 합리적 안을 의결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회가 변경하려 한다면 승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지 않아도 민선 4기를 거치는 동안 지방의회는 일당 독점으로 인해 부작용이 끊이질 않았다.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 견제를 외면하고 '대의'보다는 '밥그릇' 챙기는데 혈안이 되다보니 '의회 무용론'까지 대두됐다. 인위적인 지방의회 장악은 폐해만 양산할 뿐이다.

은펜칼럼

백강화

살아있는 로마인 이야기

내가 만일 노벨문학상을 하나 추천할 수 있다면 난 현재 내가 긴 시간 읽고 있는 '시오노나나미'의 '로마인이야기'를 추천하고 싶다. 로마인 이야기는 한번 들고 읽기가 겁나서 그러지 한 권을 떼면 나머지는 반사적으로 읽게 되는 책이다. 장장 15권에 걸친 방대한 그 책을 놓을 수 없는 건, 고대 로마인들의 삶의 방식이 인류가 수없이 시행착오를 거듭한 바로 그 역사의 축소판이며 또한 해결점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로마인들은 그 당시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나라든 정복이 가능했다. 그러나 야망은 로마인들의 추구사항이 아니었다. 그들은 법과 철학과 명예에 따라 국민 모두가 웰빙하는 그런 나라를 구현하려 했을 뿐이다.

그러나 주변의 야만적인 군주 국가들은 그런 로마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았다. 그런 나라들에 둘러싸인 로마는 싸움을 걸어오면 시민 누구나가 가장 용맹한 군인으로 변신했다. 최고 위치에 있는 집정관은 직접 진두지휘하는 장군이 되었고 나라의 대표들이 나라를 공동 운영하는 원로원은 바로 전시내각으로 돌변했다.

로마인들에게 최고의 죽음이란 바로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는 것이었다. 명예를 위해 싸우는 로마군은 싸울 때마다 백전백승하여 주변 나라를 차례로 복속하고 로마화를 시켜 나갔다.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하는 세력이 없어졌을 때 드디어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평화 즉 '팍스 로마나'가 실현되었다.

로마의 정치는 공화정(민주정치)으로 대별된다. 지금의 국회격인 원로원과 민회를 중심으로 모든 국정이 운영된다. 나라의 대표이자 원로원 소집자인 집정관은 원로원 의원 중에서 일 년에 한 번씩 선출되며 그것도 독주를 막기 위해 두 명을 뽑는다. 전쟁에서 패배는 용서가 되지만 정권을 탐하는 집정관은 가차없이 처형을 당했다. 민회는 이런 원로원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평민들의 대변기관이었다. 그야말로 거미줄처럼 촘촘히 일인독재를 막는 이런 체제가 바로 로마법의 근간이다.

로마가 복속한 나라들은 즉시 로마법에 의해 다스려졌고 로마법은 그야말로 전제군주가 나오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의 법이라, 최대한의 개인의 자유와 경제활동을 보장받은 나라들은 로마 이전보다 훨씬 다방면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로마 역시 율리어스 카이사르(시이저) 대에 이르러서 일인독주 시대로 서서히 접어들게 된다. 카이사르는 필승장군으로서 국민들에게 절대 인기를 얻었지만 부패한 원로원은 그 때문에 그를 제거하려 했다. 카이사르는 로마를 살리자는 명분으로 자기 군사를 몰아 로마로 진군하게 된다. 지금으로서 쿠데타다. 쿠데타는 분명 불법이었지만 그 이후 카이사르는 로마법을 더욱 곤고히 하고 선정을 베풀었기에 로마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도 신으로 받들어 지기까지 했다.

그러나 카이사르 이후의 황제들, 대표적으로 네로처럼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나타났지만 로마법에 기반을 둔 로마는 오랫동안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지금의 선진유럽을 기초했다. 이런 로마법의 가장 근간은 관용과 유연성이다. 로마는 하나의 이념이 아닌 끊임없이 만인의 선을 추구하는 법치를 모색했기에 진정한 세계평화를 구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로마인이야기는 결코 기원 전후 고대 인류의 이야기가 아니다. 올해 정치진입을 꿈꾸는 선량들 중 최소한 로마인이야기 정도를 숙독한 이라면 난 그를 주목하고 싶다.

〈주부〉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고

정필연

학생 재능중심의 여러 줄 세우기 교육

21세기는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교육체제가 요구되는 시대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는 글로벌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학생 개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계발하여 국제 경쟁사회에서 한 분야의 리더가 되도록 인재를 육성하는 일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학교교육의 현실은 대학입시에 얽매인 나머지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재능은 사장되기 일쑤였다. 그래서 대학교에 진학하고서도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한 학생들을 주위에서 가끔 보곤 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전국을 선도했던 교단 선진화 사업의 토대 위에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고 잠재력을 계발하는 여러 줄 세우기 교육인 '학생 재능중심 u-러닝 교육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작년부터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데, 많은 대학들도 이제 학생들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대학입학사정관제도 도입을 확대해 가고 있는 시점인 만큼 교육의 본질 추구는 물론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내용은 학생 재능진단육성, 교실수업 지원, 학생 자율학습 지원, 인프라구축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31개의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하였고, 지난해 11월 25일에는 그동안의 시범운영한 결과를 발표하고 검증받는 전국단위 성과발표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기조강연을 한 서울대학교 문용린 교수는 "앞으로의 교육은 지식을 '집어넣는 교육'에서 창의성과 잠재력을 중시하는 '끄집어내는 교육'으로 전화되어야 하고, 이를 광주에서부터 출발했다"고 극찬하기도 하였다.

또한, 참석한 1천200여 명의 교육관계자들과 교장선생님 및 학부모님까지도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교육의 방향이라고 공감하였으며, 교과부에서는 앞서가는 교육행정으로 전국에 소개해 주기도 하였다.

올해에는 지난해의 결과를 바탕으로 창의·인성교육의 강화와 학생 재능을 진단하고 육성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모든 학교에서 학생 개개인의 재능을 검사도구, 관찰, 상담 등을 통해 진단하고, 학생·학부모와 상담을 통해 강점 재능을 살리고 약점 재능을 보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소집단 토의·토론학습 위주의 재능육성수업을 활성화하고, 특기·적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아울러, 방과 후와 가정에서는 학생 재능 자율학습지원 콜센터를 활용하여 스스로 재능을 키워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재능콘테스트, u-스타와의 만남, 온라인 재능방송, 인터넷 재능방송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재능발굴육성 활동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이렇게 학생 개개인의 재능을 진단하고 발굴하여 키워나가는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훗날 광주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저마다 지닌 재능을 살려 전 세계를 마음껏 누비는 글로벌 스타지도자로 태어나리라고 확신해 본다. 이는 교육자들의 소망이자 사명이기도 하다.

〈광주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

청소년들 심야 PC방 출입 엄격 제한해야

며칠 전 PC방에 갔는데 카운터를 보는 알바생과 PC방을 찾아온 손님과 싸우고 있었다. 한눈에 봐도 앳돼 보이는 이 청소년은 대학생 신분증을 보이며 왜 막아서냐고 항의를 했다.

원래 PC방에는 밤 10시가 넘으면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게 돼있지만 이런 식으로 가짜 신분증이나 혹은 다른 사람 신분증을 들고 출입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로 많다. PC방에서야 손님이 들어와서 돈을 버니까 신분증이 가짜든 진짜든 들고오기만 하면 입장을 허락한다. 그래서인지 요즘 PC방에 이런 가짜 성인이 위조 신분증 혹은 아예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심야 PC방행을 즐기는 학생들이 적잖은듯하다.

아주 어린 청소년들이 왁자지껄 PC방에 드나드는 것을 자주 본다. PC방 업주가 모두 다 내 동생, 혹은 내 자식이라는 생각으로 양심껏 영업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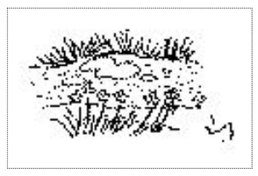
▲유진규·여천시 신덕동

無等鼓

습지의 가치

2일은 세계 습지(濕地)의 날(World Wetlands Day)이다. 지난 1997년 람사르 협약 채택일을 기념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2년부터 기념행사를 해오고 있다.

습지는 오랫동안 각종 해충과 질병의 발원지로 인식되면서 쓸모없는 땅으로 평가 절하돼 왔다. 나폴레옹 같은 정복자들에겐 진군을 가로막는 걸림돌 쯤으로 여겨졌다.



습지의 가치가 재평가된 것은 불과 100년 안팎의 일이다. 산업화로 지구 곳곳이 파괴되면서 환경 파수꾼으로서의 습지 역할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습지는 매우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홍수 조절기능에서부터 수질정화와 지하수 보급, 생물 다양성 유지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최근에는 관광자원으로도 한 몫을 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경남 창원에서 열렸던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습지의 가치가 계량화돼 흥미를 더했다.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따르면 전 세계의 습지를 돈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4조9천만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국내 습지의 연간 가치도 조사된 바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연구 결과, 한강 하구 습지가 7천337억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영산강 습지 461억 원, 섬진강 습지 919억 원 등으로 평가됐다.

영산강 32곳 등 4대강 사업구간에 있는 습지는 107곳에 달한다. 환경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습지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洑) 건설 등으로 습지에 직·간접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제환경단체인 '세계습지 네트워크'도 4대강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권고할 정도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새로운 에너지원을 창출하는 녹색 성장이 국가발전 전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녹색 성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습지의 날을 맞아 한번쯤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 /고경석 사회2부장 ksgo@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